

'국악, 전통에서 일상이 되다'

서학예술극장, 12월까지 총 8개 전통예술 공연 개최

서학예술극장(대표 이여송)이 준비한 기획 공연 시리즈 '국악, 전통에서 일상이 되다'가 7월 5일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전통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서학예술극장은 2021년 개관 이래로 전통예술 전문 소극장으로서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며 진숙하고 재미있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역 소리꾼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서학예술극장이 아심 차게 준비한 기획 공연 시리즈 '국악, 전통에서 일상이 되다'는 도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8개(초화, 창연, 구각노리, 아트쿠도, 악비리, 발광, 취선악, 사맛디)의 국악 그룹이 참여하는 전통예술 공연 축제다.

먼저 7월 5~6일에는 국악 실내악단 '초화'가 창작한 국악 아동극 '청소반장 낭랑이의 하루'가 무대에 오른다. 한옥마을에 살고 있는 고양이

이 낭랑이가 쓰레기 데미로부터 한옥마을을 지키기 위해 청소반장에 도전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국악으로 재미있게 표현한다.

이어 8월 24일에는 힙(HIP)한 청년 예술인 그룹 '창연'이 '힙(HIP)한 광대들'로 찾아온다. 태평소와 사물놀이, 소고놀이와 사자춤 등 전통적인 흥을 대표하는 요소로 구성됐다.

또 9월 13일 공연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국악 그룹 '구각노리'가 준비한 국악소 '잡살 아보세'다. 국악 장단에 락, 팝, 재즈, 일렉트로닉을 녹여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9월 27일에는 국악과 재즈를 잇는 그룹 '아트쿠도'가 '국악을 품은 재즈의 소리 너머'를 선보인다. 사찰가 등 총 9곡의 전통음악을 재즈로 풀어낸다.

10월 25일~26일 기간에는 전통 민속악 전문 그룹 '악(樂)바리'의 '전통의 신흥'이 무대에 오른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음악의 즐거움과 흥겨움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11월 8일에는 택견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통문화 공연예술 그룹 '발광엔터테인먼트'가

직접 창작한 무예극 <인왕산 호랑이>가 진행된다. 한순간도 눈을 땔 수 없는 전통 액션 연희의 향연이 기대된다.

11월 30일은 태평소 앙상블 그룹 '취선악'이 <태평소 앙상블>로 무대를 꾸민다. 태평소 음악의 대중성과 확장성을 고민해온 태평소 연주자 겸 작곡가 이시준 선생이 이끄는 취선악이 태평소와 함께 대북, 모듬북, 드럼, 장구, 팽과리를 사용하여 웅장한 음악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은 타악 프로젝트 그룹 '사맛디'가 준비한 '국악 월드뮤직 사맛디 콘서트'가 무대에 오른다. 국악 타악과 함께 세계의 다양한 악기와 장르를 화려하게 넘나드는 공연으로, 서학예술극장 기획 공연 시리즈 '국악, 전통에서 일상이 되다'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여송 대표는 "재단 지원사업을 통해 8개 공연 단체, 61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기획 공연 시리즈를 제작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국악의 다양한 색깔을 도민과 공유하고, 지역 전통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전 예매는 나투컬처 누리집(www.naturculture.com)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서학예술극장(063-231-8881)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플리마켓·푸드트럭 모집

16일까지 운영단체 접수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는 오는 16일까지 '플리마켓(체험·판매) 및 푸드트럭' 운영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부문의 축제에 어울리는 체험이나 물품, 여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팽과리푸드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으로 나뉜다.

참여를 위해서는 축제 기간 모든 일정에 참여가 가능하고, 판매 가능한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접수는 전주세계소리축제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 후, 소리축제 행사팀 이메일(event2@sorifestival.com)로 하면 된다.

결과발표는 19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단체는 소리축제 기간 축제장에서 플리마켓이나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부스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전기시설 등은 소리축제 측에서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리축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행사팀(063-252-8357)으로 하면 된다.

한편,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는 8월 14~18일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일대에서 펼쳐진다.

/장은성 기자

디자인 예보, 입주작가 5인 선정 완료

디자인 예보(대표 김현정·박세진)가 신희준, KoN, 임하나, 권동주, 김동희 등 5명의 입주 작가 선정 완료. 전주와 서울을 거점으로 예보 미디어 레지던시 2024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4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거점형에 선정된 디자인 예보는 전북을 대표하는 미디어 레지던시 운영 단체로, 매년 입주 작가 중심의 실험적인 도전을 통해 전국적인 입지를 다져

가고 있다.

올해 예보 미디어 레지던시에 선정된 입주 작가는 총 5명이며, 입주기간 5월부터 12월까지 전주시에 위치한 디자인 예보 사옥과 팔복오길을 거점으로 작품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자인 예보 김현정 공동대표는 "예보 미디어 레지던시의 기본적인 운영 방향은 지역의 문화예술계와 타 도시의 예술 생태계를 연결 짓는 '커넥터(연결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레지던시 운영 방향성을 전했다.

이어 박세진 공동대표는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간 문화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레지던시 운영 각오를 밝혔다.

한편, 디자인 예보는 지난 4월 2년 연속으로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오는 9월 4~8일 무주 향교를 거점으로 '2024 고백 아트 페스타(GAF:Gotaek Art Festa)'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 예보 공식 누리집(www.designevogroup.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재단 창작지원팀(063-230-7444)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틈타창교실 수강생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창곡과 판소리를 배우고,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 체험교육 프로그램(틈타창교실)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선착순 20명으로 수강료는 5만 원이고, 25일부터 8월 8일까지 남원 지리산 소극장에서 진행하며, 마지막 날인 8월 9일 오후 7시에는 갈고뒸는 실력을 뽐내는 창곡 <별주부전>을 무대에 올린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9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063-620-2319)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우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이연미 금속공예가 특별기획전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4일 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1관에서 이수(秀手) 청년작가 이연미 금속공예가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일 전당에 따르면 이연미 작가는 금속공예 분야에서 섬세하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로 금속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개도를 통해 형태의 다양성과 구조적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금속을 평면에서 입체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완성한 △Two Paper Cones 스피럴처럼 표면 △접힌 표면 △Boxed 등과 함께 정원과 금을 이용해

제작한 다수의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전통 금속공예 기법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창조해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예술적 가치와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하다.

김도영 원장은 "수수(秀手) 청년작가 특별기획전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들이 수공예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들로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고자 기획했다"고 밝히며 "이번 이연미 금속공예가의 특별전은 우리 문화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금속공예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산 너머 산' 무주서 만난다

전북도립미술관·무주 최북미술관 공동 기획전시 8월 11일까지 개최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최북미술관이 전북도립미술관과 공동 기획한 2024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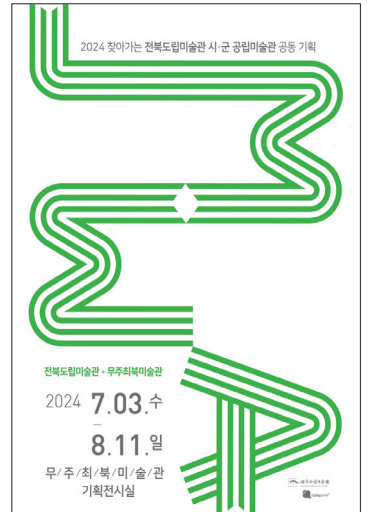
오는 8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전북, 산 너머 산>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아름다운 명산을 회화로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이종구 작가 등 16명이 '산'을 소재로 그린 '백두대간-덕유산 향적봉' 등 2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무주 최북미술관 하유진 학예사는 "청정 자연에서 마음의 안정과 일상에서의 회복, 예술로 담아낸 아름다운 우리의 산을 만나 보실 수 있는 기회"라며 "같은 산이지만 작가의 회화에 따라 재해석된 '또 다른 산'을 바라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가의 시선과 구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점을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이 이번 전시회의 관람 포인트"라고 말했다.

7월 9일부터는 전시와 연계해 책갈피 커스텀 프로그램 '덕유산을 담다'도 운영한다. 이종구 작가의 <백두대간-덕유산 향적봉>을 스탬프(관화기법)로 표현해 책갈피로 제작하는 것으로 재료 소진 시까지 참여 가능하다.

한편, 향유와 공유가 있는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은 도내



공립미술관과 함께 2024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의 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번 "전북, 산 너머 산"은 도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자연특별시 무주와 결합한 '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정해 전시하게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